

## 화점을 내면서

눈부리 아득히 뻗어간 백사장에 붉은 해당화가 만발하고 출렁이는 동해의 푸른 물결과 싱그러운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환복의 아름다운 그림같은 송도원에 자리잡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총 부지면적 34만여㎡, 연건평 4만 1 000㎡에 1 250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아이들의 행복의 궁전으로 훌륭히 개진되었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오늘과 같이 세계일류급의 야영소로 천지개벽되기까지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의 대서사시가 뜻깊게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주체48(1959)년 6월 원산시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송도원백사장에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를 큼직하게 지어줄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훌륭하게 일떠신 야영소를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야영소자리가 참 명당자리라고, 아끼던 명당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준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49(1960)년 8월 17일 첫 야영의 문을 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그후 절세위인들의 극진한 보살핌속에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더욱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미대결전이 치렬하였던 1990년대초 이전의 야영소건물을 헐고 바다우에 두둥실 떠있는 큰 함대를 방불케 하는 1 000여명이상의 수용능력을 가진 새 야영각들과 시설물들을 훌륭히 일떠

세우도록 하시였다.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적으로 잘 꾸러진 야영소를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겁쟁이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주체102(2013)년 5월 몸소 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와보고싶어하는 세계일류급의 야영소로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하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만아니라 주체적 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권리성, 선 미학적성, 선 후대관이 보장된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참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있는 사랑의 궁전이며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궁전이다.

오늘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하늘가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야영생들이 활짝 펼치는 희망의 나래인양 야영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그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끊없이, 끊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야영소에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뵈옵고싶어 달려온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을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대원수님들의 인자하신 모습은 정녕 따스한 빛과 열로 이 세상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의 모습 그대로이다.

우리를수룩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안겨오고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노래가 절로 리쳐나온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랑랑히 울려 퍼진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소년야영단원들이 정렬한  
가운데 창공높이 오르는 야영기발, 킬킬 나뭇기는 야영기를  
향해 소년단경례를 보내는 야영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과  
기쁨의 파도가 물결친다.

가슴에 차넘치는 긍지와 량만을 안고 야영단별로 썩씩하게  
행진해나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소리가 송도원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간다.

